헤더로 이탈리아 꺾을 '제2의 안정환'은 누구

9일 오전 운명의 4강 대결
최석현, 16강전·8강전서 잇따라 결승골 넣은 수비수
이영준, 193㎝ 장신 공격수 공중볼 따내는 능력 탁월

이탈리아 격파에 앞장설 '제2의 안정환'은 누가 될 것인가.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3 U-20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며 4강에 올라가 있다.

1승만 더 거두면 2019년 대회 '준우승 신화' 이상의 대업에 도전할 기회를 거머쥔다.

김은중호의 다음 상대는 한국 축구가 가장 짜릿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 이탈리아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히딩크호의 안정환이 연장 후반 11분 이영표의 대각선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2-1 승리를 매조지는 골든골을 넣고 '반지 세리머니'를 펼치는 장면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팬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김은중호의 이탈리아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아 보인다.

김은중호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8골을 넣었는데 이중 절반인 4골을 머리로 해결했다.

안정환의 이탈리아전 골든골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김은중호의 헤더 골 4개는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승부에 결정적인 골이었다는 점은 같다.

김은중호의 헤더 골 4개 중 3개는 결승골이었고, 1개는 조별리그에서 귀중한 승점 1을 챙기게 해 준 동점골이었다.

지금까지 헤더골 득점 기록만 놓고 보면 '제2의 안정환' 후보로는 센터백 최석현(단국대)을 1순위로 꼽을 만하다.

최석현은 에콰도르와 16강전, 나이지리아와 8강전에서 잇따라 헤더 결승골을 기록했다.

두 차례 모두 이승원(강원)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문전 헤더로 마무리 지었다.

K리그1 울산 현대의 유소년팀인 울산 현대중·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단국대에 입학한 최석현은 178㎝로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점프력이 좋아 헤더에 강점을 보여온 선수다.

어렸을 때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며 갈고닦은 득점 감각은 세트피스 득점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포지션까지 고려하면 김은중호의 붙박이 원톱 스트라이커 이영준(김천)도 다시 한번 극적인 헤더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영준은 '강적' 프랑스를 무너뜨린 1차전에서 이승원의 프리킥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 2-1 결승골을 넣은 바 있다.

키 193㎝, 88㎏의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는 이영준은 공중볼 따내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다.

다만, 이영준이 헤더 능력 외에도 여러 장점을 가졌다는 점이 이번 대회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그는 발밑 플레이와 연계 능력이 좋아 전술적 활용도가 높은 선수다.

안정환에게 '택배 크로스'를 배달한 이영표의 역할을 대신할 선수로는 단연 이승원이 기대를 모은다. 김은중호 세트피스 헤더골 4개 모두 이승원이 어시스트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준결승전은 오는 9일 오전 6시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연합뉴스

최석현

이영준

KIA는 졌지만 윤영철 보며 웃었다

고졸 신인 7이닝 2실점 호투

'슈퍼루키' 윤영철이 7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온 윤영철이 개인 최다 이닝 기록을 새로 썼고, 내야수 박찬호가 마수걸이포를 날렸지만 웃지 못했다.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윤영철은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7이닝까지 소화했다.

1회초 1사에서 윤영철이 박성한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최정의 좌중간 2루타가 나오면서 1사 2·3루, 에레디아와의 승부에서는 볼넷을 허용하면서 윤영철이 1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하재훈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다. 소크라테스가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공은 바운드된 뒤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윤영철은 한유섬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김성현의 타석 때는 3루 땅볼을 만들어 추가 실점을 막았다.

1회 이후로 윤영철은 7회까지 세 명의 타자만 내보내는 깔끔한 피칭을 이어갔다.

2, 3, 4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고, 5회 1사에서 김민식과 최지훈에게 연속 안타는 맞았지만 박성한과의 승부에서 3루 땅볼로 아웃카운트 2개를 동시에 올렸다. 공을 잡은 3루수 류지혁이 베이스를 밟은 뒤 1루로 송구해 병살타를 만들었다.

윤영철은 최정-에레디아-하재훈을 상대한 6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5월 24일 한화전 이후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다. 윤영철의 이닝은 6회에서 끝이 아니었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1사에서 김성현을 유격수 내야안타로 내보냈지만 김진성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7이닝 1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개인 최다 이닝 기록을 7이닝으로 늘린 윤영철은 투구수도 99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앞선 최다 투구수는 5월 17일 대구 삼성전 92개다. 이날 윤영철의 직구(49개) 최고 스피드는 142㎞를 기록했고, 평균 137㎞를 찍었다. 윤영철은 슬라이더(31개·123~129㎞), 체인지업(16개·123~127㎞), 커브(3개·114~115㎞)도 구사했다.

윤영철

'고졸 루키'가 최다 이닝과 최고 투구수를 만들었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SSG의 새 외국인 선수 엘리아스에 막히면서 KIA가 고전했다. 4회 박찬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엘리아스의 초구 체인지업을 좌측 담장으로 넘긴 게 이날 경기의 유일한 점수가 됐다.

승부를 뒤집을 기회는 있었다.

김선빈의 좌중간 안타로 시작한 7회 상대 3루수의 실책까지 나왔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8회에는 2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최형우의 타구가 외야로 멀리 뻗어나갔지만 우익수 하재훈의 좋은 수비에 막혔다.

9회는 더 아쉬웠다. SSG의 마무리 서진용이 제구 난조로 3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의 기회가 찾아왔다. 상대가 제구 난조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류지혁이 초구에 반응했고 공은 멀리 뻗지 못하고 짧은 중견수 플라이 아웃으로 경기가 끝났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SSG전 전적은 2승 4패가 됐다.

KIA는 7일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SSG 백승건을 상대한다. 양현종은 지난 2일 사직 원정에서 2이닝 9실점을 하면서 47구에서 등판을 일찍 마무리했었다. 투구수가 적었던 만큼 양현종은 4일 휴식 뒤 선발로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오늘 수원 상대 안방서 연승 도전

'결정력'을 더한 광주FC가 수원삼성을 상대로 안방에서 연승을 잇는다.

광주는 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홈경기를 앞둔 광주의 분위기는 최고조다.

서울이랜드와의 FA컵 16강전에서 승리 DNA를 깨운 광주는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7경기 연속 무승 고리를 끊고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지난 3일 '난적'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도 4-2 승리를 거두고 포효했다. 상대의 자책골과 함께 올 시즌 알짜배기 활약을 하고 있는 두현석이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엄지성도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 '주장' 안영규는 14라운드 인천전에 이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광주의 득점력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FA컵 포함 최근 3연승 중인 광주는 2라운드 연속 베스트팀에도 선정됐다.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순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앞선 포항전 승리로 6승 3무 7패(승점 21)를 기록하며 7위에 자리했다. 역시 6승 3무 7패의 전북현대와 승점이 같지만 득점에서 앞섰다. 6위 대전하나시티즌(6승4무6패·승점 22)과는 승점 1점 차, 5위 대구FC(6승 6무 4패·승점 24)도 가시권에 있다.

다양한 공격루트로 수원 수비를 허물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포항전에서 광주는 아사니의 매서운 왼발 크로스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풀백 두현석은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환상적인 감아차기 슛으로 시즌 1호골을 장식했다.

주장 안영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안영규는 최근 3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만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광주 공격을 깨웠다.

무엇보다 엄지성의 득점이 반갑다.

올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엄지성이 긴 침묵을 깨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채웠다.

수비도 든든하다. '네덜란드 철벽 수비수' 티모와 안영규가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고, 중원에서 이순민과 정호연이 많은 활동량과 부지런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수원은 베테랑 염기훈과 함께 김보경, 이기제, 안병준, 정승원, 고승범, 최성근 등 공수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K리그 전통의 강호다.

하지만 명성과 다르게 수원은 올 시즌 2승 2무 12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올 시즌 광주의 첫 승 제물이 되기도 했고 최근 3연패 중이기도 하다.

자신감을 얻은 광주가 초반부터 거세게 수원을 공략하면서 홈팬들에게 3연승을 선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K리그1 16라운드 '베스트 팀'

광주FC가 2라운드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포항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둔 광주가 베스트 팀이 됐다. 지난 15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뒀던 광주의 2라운드 연속 선정.

'천적' 포항 사냥에 나서 골을 기록한 안영규·두현석(DF) 그리고 엄지성(MF)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3일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은 내줬지만 상대 자책골로 1-1을 만든 뒤 후반 10분 두현석의 시즌 첫 골로 2-1 리드를 잡았다. 후반 19분에는 엄지성이 8경기 만에 골 맛을 보면서 눈물의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호재의 헤더로 3-2로 쫓기던 후반 36분에는 안영규가 두현석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6승 3무 7패, 승점 21점을 만들면서 7위에 자리했다. 8위 전북현대와 승점이 같지만 득점에서 앞섰다.

김천상무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둔 전남드래곤즈에서는 발디비아(MF), 유지하(DF)가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전남은 정정용 감독의 김천상무 데뷔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지난 4일 홈 경기에서 전반 34분 발디비아의 오른발로 선제골을 장식한 뒤, 12개의 슈팅을 날린 김천상무를 무실점으로 막고 1-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전남은 앞선 천안시티FC전 2-0 승리에 이어 연승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호연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발탁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사진)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U-24)에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중국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황선홍호' 28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정호연이 포함됐다.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 유스 출신의 정호연은 단국대를 거쳐 지난 시즌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한 2년 차 선수다.

프로 첫 해부터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안정된 경기 조율 능력을 선보이며 36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한 정호연은 올 시즌에도 공수 연결고리를 담당하면서 팀의 주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K리그 2~3월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는 등 K리그의 미래로 꼽힌다. 정호연은 광주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황선홍 감독의 꾸준한 부름을 받고 있다.

정호연은 "구단을 대표해,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큰 자신감을 갖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U-24대표팀은 오는 12일 출국해 15일과 19일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 두 경기 모두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가 열리는 저장성 진화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한편 이번 명단에는 역시 광주 유스 출신인 엄원상(울산현대)도 포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